



김효신의 노르웨이 베르겐 여행기 Norway in a Nutshell

49. '엔요르닝겐' 에서 베르겐 마지막 저녁식사

다알라 양모 스웨터를 한아름 품에 안고 매장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밖이 캄캄했다. 나는 빠른 걸음으로 브뤼겐 지구를 지나 톤 로젠크란츠 호텔을 향해 언덕을 올라갔다. 6시에 '엔요르닝겐' 레스토랑에 저녁 예약을 했으니 서둘러야 했다. 물건도 다 갖다 놓고 베르겐에서의 마지막 디너를 위해 옷도 좀 갈아 입고 무엇보다도 핸드폰을 충전해야 했다.

호텔에 돌아와 준비를 하면서 황금빛 나의 룸을 다시 한 번 잘 둘러 보았다. 예쁘고 편안해서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좋고 행복했던 3층 코너 방. 베르겐에 다시 온다면 꼭 이 호텔에 돌아와 이 방에서 다시 묵을 것이다. 그리그의 '페르콘트' 서곡을 들으면서 옷을 갈아 입고 준비하는 동안 어느덧 시간이 되었다. 이제 베르겐 관광 가이드에서 '노르웨이에서 제일 맛있는 레스토랑' 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소개한 '엔요르닝겐' 레스토랑에 가 맛있는 노르웨이 대구 요리를 먹으며 베르겐의 마지막 밤을 멋지게 장식하자!

밖으로 나왔을 때는 역시 또 비가 내리고 있었다. 진실로 베르겐은 비의 도시이다. 마치 영원히 비가 내리는 것 같다. 하지만 정말로 사랑한다. 비 때문에 나는 베르겐에 오지 않았는가? 이제 밖에 나갈 때 우산을 챙기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졌다. 나는 까만 우산을 받쳐 들고 베르겐의 빗속에 호텔에서 5분거리에 있는 '엔요르닝겐' 을 향해 걸어갔다.

브뤼겐 골목으로 다시 돌아 왔다. 비가 내리는 골목은 어두웠고 인적이 없어 으스스했으나 걸어 다니기에 위험하다는 소리는 전혀 듣지 못해서 무섭지 않았다. 어제 '토 코케' 에서 저녁을 먹고 걸어 나올 때도 괜찮았으니 나는 마음을 폭놓고 유니콘이 그려져 있는 레스토랑을 향해 빼격거리기는 나무 계단을 올라갔다.

빨간 유니콘이 그려져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니 19세기 스타일 레스토랑이 다시 나왔다. 오늘 다시 보니 '토 코케' 하고 비슷하게 확실히 더 전통적인 느낌이 들고 약간 더 큰 것 같았다. 레스토랑 안에는 손님이 아무도 없었다. 입구에 서 있으니 흰 셔츠를 단정히 입은 웨이터가 와서 예약을 확인하고 구석에 있는 조그만 둥근 테이블로 안내해 주었다. 걸어가는 데 나무 마루가 역시 빼격거리기는 소리를 낸다.



흰 테이블보 위에 일인용 디너 세트가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는 내 테이블은 구석이면서도 가운데 자리잡고 있어서 레스토랑 안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나무 서까래가 그대로 드러난 낮은 천장 아래 가득 찬 19세기 스타일 가구와 그림들. 정말 오래된 물건들이다. 그러나 그 오래된 물건들 때문에 겸손하고, 성실하고, 절제된 우아함이 우러나왔다.

중년 아저씨 웨이터가 메뉴를 들고 나타났다. 정중하게 먼저 무엇을 마시겠냐고 물어 본다. 완벽한 영국식 영어 발음처럼 완벽한 매너였다. 화이트 와인을 좋은 것으로 한 잔 달라고 했다. 조금 후에 스페인산 화이트 와인을 가지고 왔는데 나무랄 것 없이 훌륭했다. 어제도 괜찮은 스페인 와인을 마셨는데 오늘도 역시 성공이다. 와인과 함께 식전 빵을 담은 조그만 바구니도 나왔다. 말랑하고 촉촉한 빵이 입맛을 돋군다. 나는 애플타이저로 흥함을 넣은 크림 스프를 주문하고 대구 요리를 시키려고 메뉴를 살폈다. 메뉴는 의외로 매우 간단했는데 맨 위에 '류트피스크(Lutefisk)' 라는 요리가 있었다. 뭔가 특별한 것 같아서 웨이터에게 물어 보니 노르웨이에서 크리스마스에 먹는 전통 생선 요리로 말린 대구를 불려서 만든다고 한다. 일년 중 유일하게 이맘 때만 메뉴에 올라오는 크리스마스 특선 대구 요리라고 하니 '바로 이거야!' 라는 확신이 들어서 나는 두말 없이 '류트피스크' 를 주문했다.

새라김 헤어스튜디오

- 남자 컷 \$12^{UP} •여자 컷 \$20^{UP}
- 펌 + 컷 \$50^{UP}
- 칼라+컷 \$50^{UP}
- 칼라+헤어트리트먼트 \$60^{UP}

좋아지는 고객의 머리결은 저희 기쁨입니다

모발 손상이 전혀 없이 뿌리 부분만 "하프 inch" 블록 실려주는

시크릿 하프 inch 펌

- 갈라진 가마 자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 볼륨있는 생머리 스타일이 가능해집니다.
- 납작한 머리형이 풍성하게 살아납니다.

*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예약을 우선합니다)

새라김 헤어스튜디오 ☎ (714)530-5755

8762 Garden Grove Bl. #106, Garden Grove, CA 92844(김치나라 건너편)

메디케어/처방약 보험/오바마케어

치과: 본인이 원하시는 치과의사 선택과 전반적인 치과 다 커버되는 우대플랜 (\$1500-\$2000/yr) - (지역별로 다름)

- ☑ 올해 65세가 되시는 분 (메디케어 수혜자)
- ☑ Senior 우대플랜 - Part C (A+B+D)
- ☑ Extra Help (처방약 보조)가 필요하신 분
- ☑ Medicare와 Medicaid (메디칼)을 같이 갖고 계신 분
- ☑ 현재 플랜을 바꾸고 싶으신 분
- ☑ 타주 혹은 다른 카운티에서 이사 오신 분
- ☑ Supplement Plan (PPO) 의사나 병원 선택의 자유
- ☑ ESRD Plan(말기신장염)투석케어

어르신들의 필요하신 혜택들을 28년의 오랜 경험으로 최선을 다해 찾아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Sally Kim Medicare Healthplan Specialist

Tel. 714.714.6393 License No. 0B07129 Skim8588@yahoo.com

최고의 질병 치료법은 바로 예방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심각한 질병 및 감염병 예방에 대해 꿀약국 예방접종센터에 문의 하세요.

건강한 약국, 꿀약국!



꿀약국 예방접종센터

처방전 필요 없습니다! 예약도 필요 없습니다!

- Shingles(대상포진)
- Flu(독감)
- Prevnar 13, Pneumovax 23(폐렴)
- Hepatitis A, Hepatitis B(간염)
- M-M-R(홍역, 볼거리, 풍진)
- Meningitis(수막염)
-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 Typhoid(장티푸스)
- HPV-Human Papilloma(인간 유두종)



약학박사 로렌 민 / 약학박사 안젤라 권 매니저 벤자민 유

Tel: 562.403.2332

7002 Moody St. #106, La Palma, CA 90623

Fax: 562.403.2331

Honeyrx123@gmail.com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PPO, HMO 받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환영



Honeyrx